

진도군, 그린뉴딜 플라워 프로젝트 추진

예산 2억2000만원 투입 견고 싶은 거리 조성해

'사계절 꽃피는 공원' 관광객·군민들 볼거리 제공

진도군이 밝은거리·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린뉴딜 플라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예산 2억2,000만원을 투입, 진도읍 주요 시가지와 도심 속 소공원 등 사계절 꽃피는 공원 조성으로 관광객들과 군민들에게 연중 볼거리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신면 칠전길 은행나무 가로수길 보안 식재를 비롯 아리랑 체육공원 흥가시 나무, 송가인 공원 백

일홍 꽃동산 등을 조성했다.

또 코로나19 감염병의 여파로 지쳐 있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살리고 생동감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도로변 난간 길이 꽃 화분도 함께 최근 설치했다.

난간 길이 화분은 진도읍 교량 3개소에 240개와 진도읍 행정복지센터 등 3개소에 설치된 3단 조형 폴플랜터 10개가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가로 화분에 식재한 꽃은 빨강·분홍·보라색의 웨이브 페츰니아로 물결처럼 잘 번져나가 분지성(가지를 만들



려는 성질)이 우수하고 생육이 강해 햇빛이 잘드는 곳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군은 그린뉴딜 플라워 프로젝트 일환으로 ▲도심속 소공원·꽃밭 ▲아리랑 사거리 등 읍 시가지 따죽지 가로수 ▲교량 난간 가로 화분 꽃길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그린뉴딜 플라워 프로젝트 추진으로 관광객들과 군민들에게 아름답고 운치 있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성전면, 제7회 행복 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동상

강진군 성전면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지역개발사업 분야 동상을 수상했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농촌중심지 지역개발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 동아리 활동 활성화 등 주민공동체 화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다.

군은 전남도 예선을 통과하고 농식품부 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콘테스트 본선에 진출해 이와 같은 성과를 이뤘다.

성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도까

지 면 소재지 내에 행복문화관, 열린배움터, 공동육아카페, 공동주차장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어린이보육, 난타, 댄스, 드론, 영화상영 등의 공간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유아부터 초등학교, 주부,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이승욱 군수는 "성전면의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민 화합과 공동체 활동 강화를 위한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행복농촌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10월 해양치유식품 '영양소 종합세트 멸치' 선정

각종 영양소 풍부·칼슘 많고 노화 막는 핵산 함량 높아



완도군이 10월의 해양치유식품으로 '멸치'를 선정했다. 완도군에는 남장망 멸치가 유명하다.

남장망(囊長網)은 연안에 그물이 밀려가지 않도록 고정해두어 조류에 따

라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멸치 때를 가두어 잡아 올리는 방식이다.

남장망 멸치는 짧은 시간 내에 뜨거운 물에 삶아 해풍으로 자연 건조하기 때문에 비린내가 덜 하며 짜지 않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완도 멸치는 서해안 한류와 남해안의 난류가 합쳐지는 플랑크톤이 풍부한 청정바다에서 자라 육질이 탄탄하다.

완도군에서는 완도를 석장리와 보길면 보육리, 금일읍 충도 등에서 멸치를 잡고 있다.

멸치는 뼈 째 먹는 대표적인 생선으로 생물의 한 개체가 지닌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 '신이 내린 완전식품'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칼슘과 인, 철분 등의 무기질 함량이 높으며, 어패류 중에서 칼슘이 가장 많고, 정어리와 함께 핵산 함량도 높다. 핵산은 세포 핵 안의 산성 물질로 성장 촉진과 에너지 생산 등을 조절해준다.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체내 핵산의 활동과 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멸치에는 머리 부위에 핵산이 집중돼 있다.

또한 불포화지방산인 DHA와 EPA가 풍부해 뇌 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 기억력 향상과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된다. 단백질과 라이신과 메티오신, 트립토판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다.

멸치는 크기에 따라 세멸(지리멸, 2cm 미만), 소멸(가이리, 3-4cm), 중멸(5-6cm), 대멸(7cm 이상)로 구분하여 부른다.

완도 멸치는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인 '완도군이슈'에서 구입할 수 있다.

완도=김광수기자



해남군, 농진청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농업 활성화' 사업 선정

해남군이 농촌진흥청 주관의 2021 연구-지도-민간 블렌딩 모델 공모사업에 '기후변화대응 아열대농업 활성화사업'이 선정됐다.

블렌딩 모델사업은 농진청과 지자체가 공동목표를 세우고, 지역 맞춤형 통합기술지원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신개념 지역농업 상생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국 156개 시군 중 최종 4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

해남군 기후변화대응 아열대농업 활성화사업은 아열대작목 재배면적 확대와 품종·유통 경쟁력 향상을 위한 아열대과수 공동브랜드 개발, 고부

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 제품개발, 체험농장 조성 등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해남군은 농촌진흥청과 사업계획 보완 절차와 협약 체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평균기온보다 1도 가량 따뜻한 한 지역으로 2020년대 중후반 아열대 기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적 특점으로 180여 농가에서 무화과, 참다래, 바나나 등 16개 아열대작목을 125ha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첫 수확한 해남산 바나나는 20브릭스 내외의 고당도로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고향 방문자제 캠페인 효과 '명절 한산'

공설공원묘지 성묘객 2019년 추석 대비 79% 감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자제 캠페인을 펼친 장흥군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으로 연휴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은 향우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추석맞이 합동 성묘'와 '별초 대행 서비스' 등 귀성 자제를 위한 노

력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출향향우와 공설공원묘지 유족을 대상으로 고향 방문과 성묘 자제를 호소하는 서한문도 발송했다.

실제로 장흥공설공원묘지를 올해 1199명으로 79%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장흥군 각 읍면에서도 매년 진행하던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도 모두 취소해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명절을 보냈다.

고속도로 장흥IC를 통해 진출입한 차량은 2019년에 비해 17.6% 감소했다.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의 한우 판매량은 지난해 추석 202두에서 올해는 172두로 줄었지만, 소고기 가격이 상승한 덕에 총 매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